

전북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전문성·우수성 인정 받은 어업인후계자 17명·우수경영인 4명 총 21명

전북도가 도내 수산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21명을 선정했다.

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38명 중 21명(어업인후계자 17, 우수경영인 4)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실행 가능성, 수산 관련 교육 이수 실적, 전문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 선정했다.

연령별로 2~30대 7명(33.3%), 40대가 14명(66.7%),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회망)자 10명(47.6%), 양식어업 종사(회망)자 11명(52.4%), 지역별로는 군산시 3명, 정읍시 1명, 김제시 2명, 완주군 1명, 고창군 8명, 부안군 6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어업인 후계자는 연리 2%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추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받은 후 그다음 해 12월 말까지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공사 등 사업 추진 및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추진 후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업을 인정받은 유능한 수산 전문인력이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도 수산업 발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우리 연구소 또한 수산업경영인을 위한 상담 및 기술교육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농업용 저수지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

지나해 표본점검·수해 복구사업 대상지 등 제외 70개소 대상

전북도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정기점검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과 함께 합동 표본점검도 시행한다.

도는 안전관리 강화 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에서 5월 도내 저수지 및 취입보에 대해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시·군 관리 저수지 1,770개소 중 지난해 표본점검 및 수해 복구사업 대상지 등을 제외한 70개소(시·군별 평균 5개소)를 선정해 4개 조 60여 명으로 구성, 점검에 나선다.

또한, 도는 합동 표본점검 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 신속

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밀점검이 가능한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과 협조해 정밀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현황 조사, 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에 대해 전북도가 확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차원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올해 2월부터 농업기반시설 7,245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 점검을 통해 도시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에 철거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

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RIMS)에 시·군관리 시설물의 조사 현황 자료를 일괄 등록해 시설물 이력 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일제조사 주요 시설물(저수지, 취입보)에 대해 현황조사의 적정성, 관리시스템 등록현황 등 서류점검뿐 아니라, 노후·방치되고 있던 중점관리 취입보에 대해 28개소(시·군별 평균 2개소)를 선정,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를 통해 관리가 소홀했던 시·군관리 저수지에 대해 안전등급을 현실화할 예정이다"면서 "농업기반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재해 사전대비는 물론, 도내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 앞장선 전북도, 입양률 '전국 최고'

전북도가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정착하는데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도내 유기동물은 1,862마리이며, 이 중 683마리(37%)가 입양되고 258마리(13%)가 자연사 했으며, 90마리(4.8%)가 안락사됐다.

이 중 도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전국 25.2%를 상회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입양문화 정착에 힘쓴 결과물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간 도는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민이 동물보호센터(23개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시 소요되는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을 최대 25만 원 지원해왔다.

또, 올해부터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 위촉해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하는 등 입양률 제고와 동물보호·복지 개선에 힘쓰는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동물을 확인한 후, 해당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관할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FAX)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공고

1. 사업목적: 건조성을 위한 개간공사 시행(복분자)
2. 사업명: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사업시행자: 최승자
3. 위치: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59번지(192-2번지)의 1필지
4. 사업시행면적: 면적 7,050㎡
5. 사업 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 예상감보율 0%
- 준공후: PE배수로(D=600) L=18.0m, 침사지(7.0X5.0X2.0) 2개소, 침사지(3.0X2.0X2.0) 2개소, 토공수로(B=0.7m) L=200m
6. 총사업비: 32,240천원
-국고: 0천원
-지방비: 0천원
-자부담: 32,240천원
7. 사업기간: 2021년 5월 일 ~ 2023년 5월 31일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 의견(이의신청) 제출 기한: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처: 고창군 건설도시과)

2021년 4월 13일 고창군수

“전북 도내 취약계층에 도움 되길”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성금 1000만원 전달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전북, 전남, 광주 영사구역)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정을 이어나갔다.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장청강 총영사가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을 대표해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의 이번 성금 기탁은 지난해 수해 피해 복구 성금 1,000만원의 기탁에 이은 두 번째 전달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민을 생각하는 총영사관의 따뜻한 마음이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중국과 한국 양 국민의 우정을 담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말로 성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주광주 총영사관,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문화, 체육, 기념행사 등의 활발한 사업추진을 통해 양국간 우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한중교류의 해’이며, 2022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뒤이어 있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중국 생활체육인의 참가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한중산단 중국기업 유치 등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주광주 총영사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장청강 총영사가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을 대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도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 최선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만기상환 유예 신청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상환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 까지 1년간 만기상환유예를 하기로 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8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만기상환유예 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기존 전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2020년 5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기업과 기존 원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신청절차는 대출금 취급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상환 기간 1년 연장을 승인 받은 후에 경진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받아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진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 또는, 전북도청 기업지원과(063-280-322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중 산단 지정 새만금서 새로운 사업협력 기회 창출 지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장청강 주한광주중국총영사 만나 요청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4일 새만금을 방문한 장청강(張承剛) 주한광주 중국총영사를 만나 '한중 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7월 부임해 새만금을 처음 찾은 장 총영사는 양 청장과 면담 후 새만금 국가산단 등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봤다.

양 청장은 새만금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을 통해 K-뉴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친환경 경 데이터센터, 그린수소, RE100 산단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산단으로 지정된 새만금에서 양국의 새로운 사업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장 총영사는 “최근 친환경 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면서 “앞으로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3-9700

www.jjmaeil.com